“연극인으로는 아마추어지만 삶은 베테랑”

종로노인복지관 ‘대학老愛’ 연극 ‘삼시세끼’ 준비 현장

수개월 동안 얼마나 닳도록 넘겼는지, 너덜너덜해져 테이프로 여며 둔 대본. 어느 배우의 손때가 묻어났을까? 다름 아닌 70대 어르신, ‘시니어 배우’들이 남긴 연습의 흔적이다.

‘제1회 시니어연극제’를 일주일 앞둔 11월 5일, 개막작 공연을 앞두고 연습에 한창인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연극단 ‘대학老愛(노애)’을 찾았다. 이날은 새 대본이 배부된 날이었다. 깨끗한 대본을 받아든 어르신들은 지난 몇 달간 손에서 놓지 않은 낡은 대본을 어루만지며, 새 대본과 함께 품에 앉았다. 자신의 대사에 표시해 둔 형광색, 빨간색 펜들이 그간의 열정과 노고를 말해주는 듯 했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 이하 종로노인복지관)은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회장 복지관)와 공동주최로 11월 12~13일 서울 대학로 설치극장 정미소에서 ‘제1회 서울시니어연극제’를 개최한다. ‘다시 청춘이다’를 부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서울시어르신문화활성화지원사업 일환으로 기획됐다. 노인들의 문화예술능력 발현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마련된 장이다.

홍승표 종로노인복지관 홍보담당자는 “그간 일반기관 주최 시니어 연극제나 복지관 내 연극발표회 등은 있었지만, 복지관 주최로 연합적인 연극제가 운영되는 것은 처음”이라며 “1회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행사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좋은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연극제에는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을 비롯해 구로 · 동작 · 양재노인종합복지관 등 5개 노인극단에서 70여 명 노인 단원들이 참여해 노년 이혼, 가족애 등을 담은 다양한 연극을 펼칠 예정이다. 극본 및 연출 경험이 없는 시니어 연극단을 위해 서울연극협회, 예술기획팀플레이, 창작집단36.5 등에서 어르신들을 도와 기획에 힘을 싣고 있다.



제1회 시니어연극제를 7일 앞둔 11월 5일, 이번 행사를 공동주최한 종로노인종합복지관 연극단 ‘대학노애’를 찾았다. 이날 새 대본을 받은 연극단은 예술기획팀플레이 소속 청년 배우 · 연출진들과 함께 연극 연습에 한창이었다.



제1회 시니어연극제가 11월 12~13일 서울 대학로 설치극장 정미소에서 열린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을 비롯해 구로 · 동작 · 양재노인종합복지관 등 5개 노인극단에서 참여한다.

11월 12~13일 시니어 연극제 개최
서울지역 5개 복지관서 참여
서울연극협회 등 전문연극단 ‘합심’
“지속적 문화예술 장 거듭날 것”

이에 종로노인복지관 연극단 ‘대학老愛’는 가족의 애환을 담은 연극 ‘삼시세끼’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연극제 동안 2차례 걸쳐 연극을 펼칠 13명의 시니어 배우들은 지난 7월부터 매일 하루 2~3시간씩 복지관 4층 강당에 모여 연습에 몰두하고 있다.

주인공 ‘미자’ 아버지 ‘말복이’ 역을 맡은 이관(남 · 74)씨는 “젊은 시절에는 상상도 할 수 없던 일이 요즘 내 삶의 가장 큰 낙이 됐다. 호기심 반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열정을 다하고 있다”며 “길거리를 어가고 지하철에 앉아서도 항상 대본을 들고 다니며 연습하고 있다”고 웃어보였다.

아울러 연극 ‘삼시세끼’에는 예술기획팀플레이 소속 청년배우 3명과 연출팀 3명이 함께한다.

20대 연극인들은 4개월 간 종로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의 열정을 함께 꽃피우고 있었다. 탈영병 역할을 맡은 연극배우 김범수(남 · 27)씨는 “어르신들과 연기할 기회가 흔치 않은데 인생의 선배님들과 함께 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임하고 있다”면서 “연기를 가르쳐 드리고 있지만 사실 배우는 것이 더 많다. 같은 대본을 읽어도 연륜과 경험에서 우러난 감정 연기에 놀라기도 한다”고 말했다.

12~13일 진행되는 연극제 일정은 △12일 오전 10시 종로복지관의 ‘삼시세끼’ △12일 오후 1시 동작복지관의 ‘처음으로 돌아가라’ △13일 오전 11시 양재복지관의 마당놀이극 ‘원통절통’ △13일 오후 1시 종로복지관 ‘삼시세끼’ △13일 오후 2시 구로복지관의 ‘탭댄서 윤일갑이 들려주는 우리네 인생이야기’ 등으로 구성된다.

종로노인복지관 정관 스님은 “노인들은 연극인으로서는 아마추어일지 몰라도 삶에서 만큼은 베테랑”이라며 “이번 연극제를 통해 제2의 청춘으로 도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를 전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길거리서 겨울 맞는 사람들을 위해

연꽃생협, 노숙인 등 위한 의류 · 생필품 지원 나서

옷장 속 두꺼운 옷을 꺼내며 겨울맞이에 한창인 요즘, 홑겹 옷을 입은 채 길거리에서 겨울이 다가옴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대한불교청년회와 연꽃생활협동조합이 노숙인 및 쪽방촌 주거민 등을 위해 의류 · 생필품 지원에 나선다.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전준호, 이하 대불청)와 대불청산하 연꽃생활협동조합(이하 연꽃생협)은 사회취약계층에게 의류 등 지원하는 ‘연꽃愛향기(가칭)’를 실시한다.

사찰에서 49제, 백중기도, 천도재 등 올린 후 발생하는 속옷 · 내복 등을 노숙인 등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사업이다.

이에 대불청과 연꽃생협은 전국 사찰을 대상으로 속옷 · 내복 · 헌옷 · 신발 · 치약 · 칫솔 · 면도기 등 의류와 생활용품을 기부받고 있다. 아울러 기부물품을 현장에서 나눠주고, 격려와 용기를 돋울 ‘연꽃愛향기 서포터즈(가칭)’도 모집 중이다. 서포터즈 활동을 위해서는 연꽃생협 조합원 가입이 필수다.

연꽃생협 측은 “선진국형 사회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현되고 있으나, 복지사각지대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특히 노숙인 등을 위한 기본적 식(食) · 주(住)는 제공되고 있으나 의(衣)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재를 올린 후 생기는 신변잡화를 기부받아 부처님 연꽃향기가 만방에 풍기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문의 (02)720-7798

박아름 기자

어르신 만남장소 ‘경로당’ 지역주민에 개방

광진노인복지관, 오픈하우스 ‘문화나눔DAY’ 실시

어르신들의 만남 장소 경로당이 지역주민들을 위해 열렸다.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10월 23일과 30일 ‘경로당 오픈하우스-문화나눔DAY’를 실시했다.

2차례에 걸쳐 다양한 문화 공연을 준비함으로써 지역주민들 발길을 경로당으로 이끌었다.

23일 ‘문화나눔DAY Ⅰ’은 자양4동 제4경로당에서 열렸다. 도시철도공사 답십리기술사업소 밴드동아리 ‘영원한 친구팀’ 공연과 함께 광진초롱꽃학교 지역사회봉사단의 난타공연, 전통거울만들기 등이 함께 진행됐다.

또한 우성1차아파트경로당에서 30일 마련된 ‘문화나눔DAY Ⅱ’엔 인근어린이집 아동 및 청소년들이 함께 영화 ‘장수상회’를 관람했다.

광진노인복지관 측은 “지역 내 경로당을 열린 공간으로 바꿈으로써 지역사회 관심 유도 및 경로당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 기대를 전했다.

한편, 광진노인복지관은 11월 4일 서울 자양동 유수지 체육공원에서 ‘2015 사랑의 김장나눔 릴레이’도 실시했다. KT&G 복지재단 후원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자양종합사회복지관, 광진구원스톱지원센터, 정립회관 등 광진구 사회복지관련 기관 7개소가 함께했다.

광진노인복지관 등 7개소는 오전에 김장작업을 실시한 후, 당일 오후에 광진구 저소득 독거어르신 1천 147세대에 김장김치를 지원했다.

광진노인복지관 측은 “우리 민족 전통 풍습인 김장 나누기를 통해 지역사회 재가어르신, 독거어르신들의 식생활을 지원하고자 한다”며 “광진구 내 사회복지기관의 연합 행사로 더불어 사는 분위기를 더욱 활발히 조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광진노인종합복지관(관장 화평)은 10월 23일과 30일 ‘경로당 오픈하우스-문화나눔DAY’를 실시했다.

라오스 난치병환아 향한 ‘자비의 손길’

조계종복지재단, 국립아동병원에 의료기기 · 의약품 전달

변변한 치료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저버리는 라오스의 어린 생명들을 위해 조계종이 의료 지원에 나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 이하 조계종복지재단)은 11월 2일 라오스 비엔티엔에 위치한 국립아동병원에 난치병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조계종복지재단 상임이사 보경 스님, 쏨마니컨 국립아동병원 부원장, 쏨싸이 난치병 치료전문 의사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조계종복지재단은 항생제 제조기 및 고압증기멸균기 등 의료기기, 난치병 어린이 치료용 항생제를 전달했다. 전달품은 라오스 내에서 구입한 것과 유통이 원활치 못한 제품은 한구에서 구입 후 항공편으로 운송했다.

조계종복지재단은 “소아암 병동은 위생관리가 매우 중요한데, 라오스 의료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의료용 살균 · 소독기조차 없어 2차 감염이 우려될 뿐 아니라 세균 감염 방지를 위한 항생제 제조기도 없는 실정”이라며 “보다 많은 난치병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기를 후원했다”고 설명했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11월 2일 라오스 비엔티엔에 위치한 국립아동병원에 난치병 치료를 위한 의료기기 및 의약품을 전달했다.

아울러 보경 스님은 싸이롬 유치원과 난치병환아 쉼터를 방문했다. 2011년 조계종복지재단이 설립한 싸이롬 유치원은 현재 라오스 정부가 자립 운영 중이며, 난치병환아 쉼터는 조계종복지재단 라오스 지부에서 운영 중이다.

보경 스님은 “간병공덕은 부처님을 모시는 것과 다름없는 매우 큰 공덕을 쌓는 일”이라며 “재단의 지원으로 라오스 의료계에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부처님 자비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아름 기자

놀이로 배우는 인성

제 56회 겨울 지도자 강습회

템플스테이와 계층법회, 불교학교의 프로그램 개발과 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강습회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에서는 “놀이로 배우는 인성”이라는 주제로 제 56회 겨울 지도자 강습회를 개최합니다. 전래놀이를 통한 인성교육방법과 쉽고 재미있게 교리를 전달할 수 있는 패널시어터, 찬불가와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노래로 함께하는 율동지도와 활용법, 법회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교재교구전시 등으로 다가오는 2016년 템플스테이와 계층법회를 준비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준비하였습니다. 제56회 겨울 지도자 강습회는 지역적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차로 나누어 개최되오니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❶ 일시 / 장소

1차	2차
2015년 11월 21일 (토) 오전 9시 ~ 오후 6시	2015년 11월 28일 (토) 오전 9시 ~ 오후 6시
수원포교당 수원사 (수원시 팔달구 수원천로 300)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칠곡도량 (대구시 북구 구암로 238)

❷ 대 상 : 템플스테이, 계층 법회 지도법사, 지도자와 실무담당자, 포교사 등 포교활동에 관심 있는 모든 분

❸ 프로그램
- 인성놀이터 : 전래놀이를 통한 인성교육법 / 강사 신옥진 〈재미재미 오감놀이〉
- 교리전달법 : 패널시어터 / 강사 이수민 〈패널시어터 마스터〉
- 찬불가 율동 및 활용의 실제 / 강사 진성철 〈크는나무이벤트 대표〉
- 교구교재전시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교육연수팀

❹ 참 가 비 : 5만원 (사전 접수 시 ■ 1차 11/18까지 ■ 2차 11/25까지 ■ 사전접수 이후 ~ 당일접수 6만원)
[입금계좌 : 국민 610301-04-132532 / 농협 053-01-267940 (예금주 :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환불은 사전 접수 기간 내에 취소하신 분만 가능하며, 이후에는 교재와 기념품으로 대체하여 발송.
※ 단체별 10인 이상 접수 시 10% 할인 / 제주도, 군종병, 고3(예비 지도자) 3만원
※ 본회 정기 후원회원은 무료

❺ 접 수 : 모바일(QR코드), 이메일, 전화, 팩스 접수 후 참가비 입금
다음카페 http://cafe.daum.net/burec [지도자 강습회 게시판 참조]
E-mail : burec@daum.net / Fax : 02-738-7863

❻ 문 의 : 02-738-7860 / 02-739-4967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사무국

불교레크리에이션협회

▲ 모바일 신청 바로가기

참나를 찾는 90일간의 여정

불기 2559년 동안거 재가안거 수행결사

재가안거 수행은 나 자신이 부처님의 제자이고 수행자임을 자각하는 실천입니다.
재가안거 수행을 통해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실천하고
자신의 본래면목을 참구하는 시간이 되시길 발원합니다.

■ 수행기간 : 불기 2559(2015)년 11월 26일 ~ 2560(2016)년 2월 22일
■ 대 상 : 안거기간 수행을 실천하고 이를 점검받기 원하는 모든 재가신도
■ 접수 및 문의 : 동안거 재가안거 수행 운영사찰 종무소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 ☎ 051)501-7554

동안거 입재식 일정 및 장소

■ 일 시 : 불기 2559(2015)년 11월 20일(금) 오후 2시
■ 장 소 : 홍법사
■ 법 문 :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장 수진스님

※ 90일 수행이력 성취 시 안거증이 수여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산연합회